




Adriaan Geuze



네덜란드의 영혼이 담긴 집 짓는 건축가

네덜란드는 화사하다. 다채로운 꽃들의 향연이 그러하거니와 꽃보다 더 화려한 건축물의 색감이 그렇다. 고딕 스타일의 웅장한 건축물로 상징되는 다른 서유럽의 도시들과는 달리 네덜란드의 도시는 화려하고 자유롭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와 실용주의가 곳곳에서 묻어나는 듯하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건축가 아드리안 허즈의 작품 세계와 그가 설계한 프로젝트 보르네오 스포렌버그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에디터 이시정 장소 협찬 West8

보르네오 스포렌버그(Borneo Sporenburg)는 암스테르담의 도심 재개발 사업 이스턴 도크랜드(Eastern Dockland)의 백미로 꼽는다. 1헥타르에 100가구를 지어야 해서 '100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은 웨스트 에이트(West 8)의 아드리안 허즈(Adriaan Geuze)에 의해 설계되었다. 아드리안은 까다로운 건축규제를 새로운 공간 모델 창조의 기회로 바꾸어놓은 주인공. 그는 달함과 열림, 채움과 비움 등 대비의 기법을 통해 저층, 고밀도(low-rise, high density) 주택지의 표본을 제시했다.

현실적인 실용주의자, 개척자적인 도시설계사

아드리안 허즈는 전형적인 네덜란드인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개척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축가다. '물과의 싸움'으로 상징되는 네덜란드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 의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는 가장 네덜란드적이지 않은 건축가이기도 하다. 수로와 포플러 그리고 원예로 장식된 목가적 농촌 경관.



그의 작품에서 이 같은 네덜란드의 전통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스틸·엔진·항구·역전·자동차·고속도로 등에서 영감을 얻는 현실적인 실용주의자이며,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조경을 찾아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는 개척자적인 도시 설계사이다.

암스테르담에서 현대식 주택의 표본으로 꼽는 보르네오 스포렌버그도 같은 맥락에서 있다. 1헥타르에 100가구를 지어야 하고, 적당한 녹지와 일조량, 주차 시설까지 확보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는 그에게 외려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BORNEO & SPORENBURG

아드리안 히즈는 주택단지 보르네오 스포렌버그를 설계할 당시 저층, 고밀도의 건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4m의 폭과 35m의 길이, 3

층의 높이로 모든 주택을 통일시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네덜란드의 고전적인 주택 양식인 프런트와 뒷마당을 과감히 없애고, 주택이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백투백(back to back) 형태로 지은 것도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 물론 블록별로 주택이 연결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편, 모든 주택의 첫 층의 높이를 3.5m 높이(일반적으로 2.4m)로 짓도록 해 주택 밀집으로 인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고, 도회적 분위기의 연출을 시도했다.

저층, 고밀도의 건축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녹지 부족의 문제는 옥상정원(Roof Garden)으로 해법을 찾았다. 주택과 바다의 접촉면을 늘리고,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해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 이른바 녹지를 대신해 바다를 선사하겠다는

아드리안 허즈는 전형적인 네덜란드인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인의 개척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축가다.

‘물과의 싸움’으로 상징되는 네덜란드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의 작품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 의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전략(Blue for Green)인 것이다. 블록 사이의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도로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주택에 30~50%의 빈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차 공간으로 활용케 했다.

아드리안 허즈는 같은 크기의 주택이 딱딱이 늘어진 단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사업을 맡을 개별 건축가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 각 건축가들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개성을 살렸고, 제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내부 구조를 창조해냈다.

생활과 삶이 조화되는 대지 예술

아드리안 허즈는 사실 ‘건축가’라기보다는 ‘조경 전문가’다. 그는 와헤닌헨(Wageningen)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정원 예술(Garden Art)과 조경 엔지니어링, 공공장소의 공간 설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가 ‘조경’을 뛰어넘어 ‘도시설계사’로 활약하게 된 것은 조경 자체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만은 아니다. 자연과의 ‘친화’만을 강조한 틀에 박힌 관념을 넘어서고자 한 것. 그는 허상이 아닌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적인 개념을 촉매제로 새로운 조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현실과 긴밀히 연결된 조경의 개념을 연구하고, 실험해온 그에 의해 조경이 다시 정의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허즈는 조경가가 아닌 대지 ‘예술가’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대지 예술적인 성향이 아닌 기존의 조경 작품과 그 작품과의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 때문. 그러나 그는 자신이 대지 예술가가 아닌 조경가임을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조경이란 하나의 작품이기 이전에 사람과 자연의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경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활과 삶이 조화되는 양식이다. 전통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역사적 흐름과 변화에 담긴 ‘요소’이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형식적인 전통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

는 자세로 그는 오늘도 새로운 형태의 조경을 발전시키고 있다.

New Leadership

소위 건축가의 전문 영역이라 불리는 도시 설계로 자신의 영역을 넓힌 아드리안 허즈, 도시 설계에 있어서 그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특히 사업 전체를 끌고 가는 그의 리더십을 많은 이들이 높이 사고 있다.

“사실 네덜란드의 도시 설계는 대부분 건축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해요. 심지어 색상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워크숍에 참여한 건축가들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저의 취향과 주장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실제 건축에 참여할 건축가들이 그의 스킴을 이해하고 그것을 오히려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만일 한 명의 개발업자가 한 가지의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80개의 주택을 짓는다면 모든 집이 같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80명의 개발업자가 한 가지의 스킴을 가지고 80개의 주택을 짓는다면 여전히 하나의 테마를 갖지만 다양성 또한 실현된다는 것이다. 시장은 개별 작가의 아이디어에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한다.

“도시 설계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젝트 전체를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스킴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후에는 건축가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 살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부추겨야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이 같은 그의 도시 설계 철학은 보르네오 스포렌버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보르네오 북쪽 반도의 일부 지역은 각 주택의 부지를 건축가 또는 수요자에게 직접 분양해 원하는 스타일로 개성 있게 설계하도록 했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드리안 허즈는 자신의 모든 작품이 네덜란드 영혼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한다. 17세기 중상주의 시대에 국제적인 무대로 본격 진출한 네덜란드, 로마 가톨릭과 스페인을 딛고 일어서는 나라, 프로테스탄트와 실용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 이와 같은 네덜란드만의 ‘기질’이 허즈가 만들어낸 작품의 원천이다. ㊦